

광주시청 전용태 근대5종 세계선수권 2관왕

김선우와 혼성 계주·정진화와 남자 계주 우승 합작
한국, 금메달 2·은메달 1·동메달 1개 역대 최고 성적

한국 남녀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시청)와 김선우(경기도청)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혼성 계주 우승을 합작했다.

전용태-김선우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혼성 계주 경기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점수 합계 1393점을 획득, 영국(1380점)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전용태는 정진화(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자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가져갔다.

김선우는 여자 단체전 은메달, 김세희(BNK저축은행)와 나선 여자 계주 동메달에 이어 대회 세 번째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서창완(전남도청)-김세희에 이어 혼성 계주 종목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이 세계선수권대회 한 종목에서 2회 연속 우승을 거둔 건 2016~2017년 남자 계주(전용태-황우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혼성 계주 경기에서 전용태-김선우는 첫 종목인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27등을 거두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승마에서는 300점 만점을 얻었고, 수영에서도

선두권 기록을 작성한 뒤 레이저 런에서 2위 팀보다 42초나 앞서 출발하며 무난한 우승을 차지했다.

전용태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근대5종의 역사를 새로 쓴 주인공이다. 지난 1964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참가 이래 57년만에 대한민국이 따낸 첫 메달이다.

전용태는 UIPM과의 인터뷰에서 "2022시즌은 우리 한국 팀에 대단한 한 해가 됐다. 개인전(17위)에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남자 계주와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 기쁘다"면서 "이제 천천히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선우는 "펜싱 랭킹 라운드의 순조로운 출발을 마지막 레이저 런까지 이어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며 "전용태 선수와 함께 우리 팀에 추가 메달을 안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혼성 계주를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남겼다.

종합 시상식은 없으나 이번 대회 출전국 중 영국(금2·은1), 개최국 이집트(금1·은2)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내 사실상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국제 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혼성 계주 경기에서 김선우(왼쪽·경기도청)와 전용태(광주시청)가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뜨거운 타격으로 상위권 도전

T 타이거즈 전망대

한화 상대 원정 경기 '연승 잇기'
두산 홈으로 불러 '천적' 정리

호재와 약재가 겹친 '호랑이 군단'이 상위권을 목표로 새 출발선에 선다.

홈 6연전에서 2승 4패에 그친 KIA 타이거즈가 대전 원정으로 8월을 연다.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연승 잇기'에 나서는 KIA는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천적 관계 정리'에 나선다.

KIA는 올 시즌 한화와 9번 만나 모두 승리를 가져왔다. 두산에는 올 시즌 6승 3패를 기록하면서 앞선 3년간의 지독한 열세를 만회하는 모습이다. 우위를 이어 승수 쌓기에 도전하는 KIA에는 호재와 약재가 겹쳤다.

새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노니가 안정적으로 KBO 리그에 정착했고, 선 놀린도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르면서 선발진에 안정감이 더해졌다.

여기에 코뼈 골절로 자리를 비웠던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29·30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공·수에서 점점을 끝내고 2일 1군으로 돌아온다.

마침내 '외국인 선수 완전체'가 구성되면서 순위 싸움에 힘이 실리게 됐지만, 뒷문이 걱정이다. 장현석에 이어 전상현까지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엿박자의 불펜에 고민이 더해졌다.

타선의 집중력과 벤치의 전략도 아쉽다.

KIA는 NC 다이노스와 SSG 랜더스를 상대했던 지난주 연말야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롯데 자이언츠와의 후반기 첫 시리즈에서 KBO 최다 점수차(23점) 승리를 만들었던 타선의 힘은 여전했지만 집중력이 떨어졌다.

KIA는 지난주 6경기에서 나성범의 홈런 3방 포함 65안타를 때려냈다. 35개의 사사구를 얻어냈고 6차례 상대의 실책도 나왔지만 30득점으로 2승 4패에 그쳤다.

SSG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2점 차, 1점 차 패배도 기록했다. 특히 31일 경기에서는 12개의 잔루를 남기면서 2-3 패를 기록했다. '열세 만회'를 위한 벤치의 전략과 승부수가 아쉬웠던 패배였다.

이날 패배로 SSG전 상대 전적은 2승 10패가 됐고, 7월은 9승 9패 5할 승률로 끝났다. 자리는 그대로 5위다. 4위 KT 위즈는 2.5경기 차로 반걸음 떨어졌다. 6위 두산은 아직 6경기 차 밖에 있지만 뒷심 있는, 저력 있는 팀인 만큼 방심할 수는 없다.

일단 믿을 것은 이창진과 나성범이 이끄는 '화력'이다.

이창진은 7월 가장 뜨거운 타자였다. 7월 한 달 63타수 30안타로 0.476의 타율을 작성했고, 8경



이창진

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등 매서운 방망이를 보여주고 있다.

나성범의 폭발력도 눈에 띈다. 70타수 27안타, 0.386의 타율로 7월 타격 전체 4위에 오른 나성범은 지난주 3개의 홈런포를 날리면서 상대 배터리를 압박했다.

소크라테스까지 타석에 들어선다면 KIA는 더 묵직한 타선으로 파워 싸움을 할 수 있다.

관건은 선발진의 이닝이다.

필승조의 동반 이탈로 선발진의 이닝이 중요해졌다.

선발진에서는 역시 양현종의 역할이 막중하다. 양현종은 지난 29일 SSG전에서 6.2이닝 2실점의 호투로 시즌 10승에 성공했다. KBO리그 통산 5번째 8년 연속 10승을 이룬 양현종은 이 경기에서 통산 6번째 2100이닝도 돌파했다.

놀린도 마운드 키를 쥐고 있다. 지난 27일 NC전을 통해 부상 복귀전을 치른 놀린은 2일 한화전 선발로 나서 장민재와 대결한다. 7일 두산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만큼 놀린의 이닝이 중요한 주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샷 이글' 김효주 LPGA 스코틀랜드오픈 3위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유럽 대회에서 2주 연속 3위에 올랐다.

김효주는 1일 영국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공동주관 대회 트러스트골프 여자 스코틀랜드오픈(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우승자 후루에 아야카(일본)에게 4타 뒤진 공동 3위(17언더파 271타)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3위를 차지했던 김효주는 사흘 뒤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오픈 전망을 환하게 밝혔다.

선두에 4타차 공동 9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효주는 2번 홀(파4)에서 샷이글을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12번(파4), 13번 홀(파4) 연속 버디로 우승 경쟁을 이어가던 김효주는 그러나 14번 홀(파5)에서 2m 버디 퍼트를 놓친 게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효주는 막판 5개 홀에서 1타도 줄이지

못하면서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김효주는 "계속 좋은 성적으로 대회가 마무리되어 기분이 좋다. 끝나면서 아쉬움이 조금 남지만 66타라는 좋은 성적을 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효주와 같은 4타차 공동 9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후루에는 10언더파 62타를 몰아쳐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2020년에 3승, 작년엔 3승 등 최근 2년 동안 6차례 우승하는 등 통산 7승을 올리고서 올해 LPGA 투어에 뛰어든 후루에는 16개 대회 만에 첫 우승을 신고했다.

이번 시즌 신인 우승은 3월 JTBC 클래식 정상에 오른 아타야 티피쿰(태국)에 이어 두 번째다.

부티에와 함께 공동 선두로 4라운드에 나선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1타밖에 줄이지 못해 공동 5위(16언더파 272타)로 내려앉았다.

나란히 3언더파 69타를 친 전인지와 최혜진, 그리고 2타를 줄인 안나린은 공동 11위(13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여자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여자 유로) 잉글랜드 대 독일 결승전에서 잉글랜드 여자대표팀이 우승을 거둔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속적' 독일 꺾고 여자 유로 첫 우승

잉글랜드가 연장 접전 끝에 '속적' 독일을 꺾고 여자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여자 유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잉글랜드 여자 축구 대표팀은 1일 영국 런던의 '축구 성지'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잉글랜드 여자 유로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전에 터진 클로에 켈리의 결승골을 앞세워 독일에 2-1로 승리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처음으로 유럽 챔피언에 올랐다. 잉글랜드는 1984년 제1회 대회와 2009년 대회에서 두 차례 준우승했을 뿐 정상에 오른 적은 없었다.

여자 메이저 대회 전체를 놓고 봐도 잉글랜드의 우승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여자축구에서는 여자 월드컵과 올림픽, 각 대륙 선수권대회를 메이저 대회로 분류하는데, 월드컵에서는 2015년 캐나다 대회에서 3위에 오른 게 잉글랜드의 최고 성적이었다.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독일을 결승에서 제압하고 따낸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이어서 잉글랜드에 더 값진 결과다.

잉글랜드 남자 대표팀은 1966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서독을 꺾고 우승했는데, 이는 남자 대표팀의 유일한 메이저 대회 트로피로 남아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조국 대표팀을 2017년 대회에서 우승으로 이끈 사리나 위그먼 잉글랜드 감독은 두 나라 대표팀에서 유로 우승을 지휘한 첫 사령탑이 되는 진기록을 썼다. /연합뉴스